

순창 군민단체, 최영일 군수에 예산 원상회복 촉구 “군 예산 부족 주장은 사실무근”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아동수당 등 삭감... “예산 여건 상 선택의 여지 없어”
군민단체, “세입 여건 개선될 전망인데 예산 이유로 주민 지원 줄이겠다는 주장 타당하지 않아”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며 아동수당, 농민수당, 청년종자통장 지원금 등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어촌기본소득 순창 군민운동본부(본부장 이선형)와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순창) 등 주민들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군의 예산 부족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3대 지원금 삭감은 주민생계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순창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복지·지원 예산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농민수당 103억 원과 아동수당 22억 원, 청년종자통장 7억 원 등 총 13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주민 반발을 샀다.



4일 농어촌기본소득 순창 군민운동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창군이 내년도 예산에 군비확대 직불금(농민수당) 예산 등을 원상회복 할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 운용 의지라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이 정도 여유 재원을 가지고도 주민 지원금을 먼저 줄이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남해군과 영양군 사례도 제시했다. 두 지자체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남해군은 약 200억원 중 80억 원을, 영양군은 480억원 중 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순창군은 289억원의 잉여금 가운데 단 5억원만 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주민 지원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순창군이 잉여금의 절반만 활용해도 지원금 삭감 없이 시범사업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한 최영일 군수가 주민들과의 갈등 과정에서 지원금 삭감을 받

대하는 농민들을 향해 “욕심이다, 혹 세무민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농민들은 1년에 1천만 원도 안 되는 농업소득으로 버티고 있고, 청년과 학부모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농촌을 지켜내고 있다”며 “이들에게 지급된 예산을 빼서 다른 사업에 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군수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수당과 농민수당은 결국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돈”이라며 “삭감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운동본부는 최영일 군수에게 3대 지원금 삭감이 포함된 예산안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향후 예산 재원 마련 과정에 관련 단체와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수가 갈등 조정자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전북도 14개 시군 중 맨 처음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2026년부터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편성된다.

/이만호 기자·순창=이양원 기자

내년 정부예산 국회 단계서 584억원 증액 민주 이성운 의원, “전주·전북 회복 위한 핵심사업 대거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전주 발전에 필수적인 11개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584억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총 727조9,000억원 규모로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됐으며, 국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대통령 주요 정책, 민주당의 중점 정책들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동영·김은덕 장관과 역할을 분담해 정부안에서 과소 반영되거나 누락된 전주 사업들을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결위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주 예산 자기와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간재 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전주국제드림 책도서전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랩 구축 △국립 전주전통과학관 조성 △전북광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전주 슬로몬로파크 신축 △협업기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구축 △전주역사 개선사업 △관광자원 기반 조성 △국도1호선(속고개로~호남로 직결 램프) 개선 등 총 11개 사업이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이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주와 관련된 예산은 총 2조 2,925억원으로 확정되며, 2025년 대비 1,34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은 전주의 미래를 여는 예산이며,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예산”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 AI 시대 대응, 지역 균형발전, 안전강화 등 전 분야에서 전주·전북이 다시 뛰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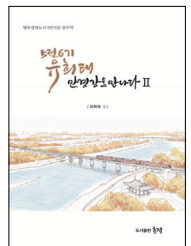
/이만호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8번째 저서 출간... 내일 출판기념회

‘5전6기 만경강을 만나다 II’

유희태 완주군수가 자신의 8번째 저서인 ‘5전6기 유희태 만경강을 만나다 II’ (도서출판 흔적)를 출간하고, 오는 6일 군민들과 만난다.

출판기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세를 과시하는 성대한 기념식 대신, 저자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차담회(Tea Talk)’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평소 “행정



의 답은 현장에 있고,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해 온 유군수의 소통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격식을 내려놓고 소소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과 교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북 환율불확실성 취약... 체계적 대응 필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수출산업·시장 다변화 등 제시

전북의 산업구조는 ‘환율불확실성’에 취약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부품·중간재 중심 구조를 완제품·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수출기반과 다문화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연구원은 4일 발표한 ‘환율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북지역 수출 정책 방향’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환율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북의 수출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환율이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

확실한 상태를 의미하는 환율불확실성은 전북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율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증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산업위기 이전에는 환율불확실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3개월 후에 나타나지만, 산업위기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위기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전북연구원은 환율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3대 수출 정책 방향으로 △수출산업 구조 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통화 분산,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 지원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환율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압박을 완화하고 수출가격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완제품·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신산업 수출 기반을 확충하여 수출산업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 리스크 완화를 위한 다문화 결제시스템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이 환헤지(Hedge) 수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리스크 컨설팅 및 정책금융 지원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미래첨단산업국 등 예산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4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

졌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탁 중심으로 운영보다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동육아 시설지원 사업과 관

련하여 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농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숙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의원(전주4)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이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2025
전북대학교 회화 / 시각예술 전공 졸업전시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ainting Visual Arts Major Graduation Exhibition

E
G
i
-
g
-
o
-
d
-
k
-
e
-
o
-
s
-
a
-
n
-
g
-
i
-
s
i
-
l
-
j
e
u
n
g

12.06 - 12.11

문화공간 기린 (전주 객사 4길 46)
09:00 - 18:00 월요일 휴무